

廣州李氏大同譜序

譜書란 한 氏族의 歷史이며 統緒를 實證하고 昭穆을 明確히 하며 同祖同根의 後孫으로 하여금 祖先의 遺志를 길이 본받아 相互親睦을 圖謀케 하는 文獻이다.

우리 廣州李氏는 明宗朝때 東臯相公께서 비로소 廣陵世譜를 修葺하셨으나 壬辰兵禍로 灰燼되고 그 後 光海庚戌에 僉樞(士溫)·寺正(士修)께서 續修하시고 漢陰相公께서 校閱序文하신 庚戌譜가 第一오래된 族譜이다. 그 後 景宗甲辰에 校理(承源)께서 修譜한 甲辰譜(三卷) 正祖丙辰에 大司諫(尚度) 宣傳官(基讓)께서 修輯한 丙辰譜(七卷) 高宗癸酉에 輔國史判(宜翼) 史曹叅判(容學)께서 編纂한 癸酉譜(十七卷) 그 다음 己未年에 特進官(承載)께서 編修한 己未譜(二十一卷)가 있으니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刊行된 五大譜인 것이다.

그런데 己未以後 干今近七十年이 되었으나 這間 民族의 受辱과 社會의 混亂으로 收族의 길이 막혀 다만 各派別로 修譜함에 그쳤다.

甲子年 봄에 大宗會의 發議로 僉宗의 響應을 얻어 大同譜를 發刊키로하니 同貫別譜하는 栗石·巖三派로 同修하게 되었음은 多幸한 일이라 하겠으나、國土分斷으로 在北族親이 修錄되지 못하게 됨을 遺憾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도리켜 보건데 通村先祖께서는 麗末에 文章志節로 一世를 울렸고、清白史公께서는 昭悼之變때 白及下에 叩馬極諫으로 伯史叔齊와 같은 높은 節義를 드러내셨으며 石灘公과 巖灘公은 臣僕을 拒否하고 清節을 지키셨으며 東臯相公께서는 出入將相하여 위태로운 國政을 盤石같이

이룩하고、漢陰相公께서는 壬亂을 當하여 再造之功을 세워 靑史에 빛나고 있다。뿐만 아니라 鮮朝五百年 동안 文學名位가 代를 이어 烜赫하였으며 不億의 後孫이 布濩四域하고 있으니 公이 모두가 祖先의 遺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늘의 우리는 이렇듯 훌륭하신 祖先을 모신 後裔들이다。 모름지기 그 遺訓과 遺志를 받들어 倫理의 道를 지켜 親睦의 誼를 두터이 하고 謹言慎行에 힘써 祖先에게 累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은 勿論 나아가 國家社會에 寄與토록 努力하는바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京鄉僉宗 및 譜所關係任員 여러분들의 勞苦에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西紀一九八七年 丁卯十二月

日

大同譜編纂委員會委員長 鍾郁 識

廣州李氏族譜序(庚戌譜)

昔余幼時從曾大父所見廣陵世譜印以活字只錄子壻不及外孫私恨其甚畧及長究古人之宗法乃知此譜有深意蓋出東臯相公之指云壬辰兵禍國籍盡灰而況於家譜乎宗老李士溫氏習知吾東諸閥世系重纂內外譜甚備以要余校印而未果一日聞韶李使君士修氏寄示姓譜一本全述東臯相公之舊書且倣蘇氏譜之詳畧嚮之未及校者一見愜意信乎知要而能世業矣間有一二差漏處輒以所聞釐正仍序其顛末而還之噫吾遁村先祖斥忤逆咤逮禍遠避叅議先祖叩馬諫獻廟於昭悼之變直聲偉節古固無比爲後孫者苟忝其家聲則能無愧於此譜乎而遁村以後雖遠而一枝也本是同根不與之相睦者獨何心哉念祖先之情觀譜而油然而發則其亦有所感於此夫

萬曆四十一年歲在癸丑孟夏 効忠奮義炳幾翼社奮忠秉義決幾亨難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漢原府院君 李德馨 書

廣州李氏族譜序(庚戌譜國譯)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일찍 大父居所에 따라가 廣陵世譜를 보았는데 活字로 印刷되었으니 子와 女婿만 記錄하고 外孫까지는 미치지 않았이하여 너무 簡略함을 恨스럽게 여겼었다. 長成하여 古人の 宗法을 詳考해 보고 이 族譜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았으며 대개 東臯相公의 指示에서 나온바라 하였다. 壬辰兵禍에 國籍도 다 재가 되었거늘 하물며 家譜에 있어서랴. 宗老士溫氏는 東國 여러 氏族의 世系를 익히 알아 거듭 内外譜를 아주 仔細히 編纂하여 나에게 校印하기를 請하였으나 그러지를 못하였다. 어느날 聞韻(義城古號) 李使君(守令의 雅稱) 士修氏가 姓譜 한卷을 보내 왔으니 온전히 東臯相公의 舊書를 記述하고 또 蘇氏譜(宋나라 蘇老泉의 族譜)의 仔細함과 簡略함을 본 옛이니 前日 미처 校印하지 못했던 것과 一見에 意思가 合致

되어 있음을 알겠다. 참으로 要領을 體得하였음이요 能히 世業이 될만 하도다. 間或 한 두군데 틀리고 빠진곳이 있어 곧 들은 바 대로 고치고 因하여 그 顛末을 敘述하여 보냈다. 噫라 우리 遁村先祖께서는 逆賊辛旽을 排斥하시다가 禍가 미쳐 멀리 避禍하셨으며 叅議先祖께서는 昭悼之變(芳遠、芳蕃、芳碩의 王子亂)에 獻廟(太宗)에게 叩馬極諫하셨으며 直聲과 偉節이 옛날에도 참으로 比할 바 없으니 後孫된 者或 家聲을 더럽힌다면 能히 이 族譜에 對하여 부끄러운 마음이 없을 수 있을까 또 遁村以後로 代數는 비록 멀어져도 一枝이다. 本是 同根으로 서로 和睦하지 못할 者가 있다면 이 무슨 心思일까 祖先의 情을 생 각하고 族譜를 보면서 油然(盛하게) 이러나는 모양)히 敦睦의 情이 일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 族譜에서 느끼바 있음을 일 것이다.

漢原府院君 李德馨 告

廣州李氏族譜重修序(甲辰譜)

族弟判隸院夏源甫重修世譜校勘訖將送于其叔父北伯公莅所俾付剗劂乃要余而謂之曰是役也兄之先大父蓋嘗經始而就緒者兄烏得無一言於斯乎曰諾是吾志也安敢以不文辭謹按舊刊同姓譜一冊即吾東 臯先祖之所撰定也至壬辰軼於兵燹其後高祖考贊成公續有編次漢陰相國序之而生員公以上四代名諱始出於諺傳雜記未有明文之可據故錄在卷端仍附其各派子孫以別本譜今行庚戌譜是也溯庚戌始百有餘年世代寢遠子姓漸繁譜牒修改以時則可往在辛未先王考因諸宗所委重收各派單目撫採攷証靡有闕漏遍加旁註添錄外孫程例不紊詳略得意遂分爲上中下三卷草本既定王考下世其書歸于族叔父叅判公且待時而鐫行未幾叅判公又捐館出閉箱篋亦有年矣迺者北伯公以叅判公之弟出按藩臬既可以鳩工辦事而判決君以叅判公之胤又明敏精勤實幹校讎於是是據印草兩本頗有增刪去取至若別譜子孫之不錄以其自貳也四代名諱之仍載所當存謹也斥合譜之說而辭理明正作辨疑之書而援據審悉不數月而編勒

卒完判決君之力於是爲多而其亦吾宗之大幸也歟於序語云根深則枝茂源遠則流長此理之常耳惟我李氏始顯於麗季逮本朝極盛於光廟成廟之世施而及乎明宣之際名公碩輔蔚然輩出文章德業焜耀簡策至今子孫千億科甲連倫此莫非祖先積累之厚有以致之也然則觀是譜者可不思所以紹闡餘休母墜其家聲耶此則吾與諸宗人之所當共勉而抑余別有所憾於心者記余昔侍王考替執筆札於斯役尚了了如昨曰事而轉頭之頃已過三紀矣不勝追撫愴咽茲敘數語並以志私感云爾

崇禎甲申後十八年 甲辰季夏 後孫 通訓大夫前行弘文館 校理知製教

兼經筵侍讀官春秋館 記註官 承源 謹叙

廣州李氏族譜重修序(甲辰譜國譯)

族弟判隸院夏源甫가世譜를重修하여校正을마치고將次 그叔父北伯(咸鏡監司)公位所로 보내어印刷에부치고저한제나에게請하야가로되이일은兄의先大父께서일찌기經營하기始作하였던바이거늘兄이어찌이世譜에一言이없을수있겠오하기에내가로되 좋다 그것은내本意이거나어찌글을못한다고辭讓하리오하였다. 삼가생각하건대舊刊同姓譜한卷은곧우리東臯先祖께서撰定하신바이나壬辰에이르러兵火에잃어버린바되었고그後高祖考贊成公께서이어編次하시고漢陰相公께서序하였는바生員公以上四代名諱가諺傳雜記에서처음나왔고明文의可據할만한것이없는故로卷末에記錄하고그各派子孫도附記하여本譜와區別하였으니至今行해지고있는庚戌譜가이것이다. 거슬러庚戌까지는거의百餘년이되어世代는멀어지고子孫은繁盛하니譜牒의改修가時期로보아서合當하다하겠다. 지난辛未年에先王考께서諸宗의委任을받아各派單目을收合하여添削考證하여闕漏함이없었고두루旁註를달고外孫까지收錄하였으니例規는紊亂스런지않고詳略도適當하여드디어上中下三卷으로나누어서草本이定해지자王考께서下世하시고그冊은族叔父叅判公

에게 돌려져時機를 보아 印出하려 하였던바 未幾에 叅判公께서 또 別世하시니 箱子속에 넣어둔지 또 몇년이 지났다. 얼마 전
에 北伯公이 叅判公의 弟로 邊境을 觀察하게 됨에 鳩工辦事(工匠을 모으고 일을處理함) 할만하고 判決君은 叅判公의 아들로
明敏精勤하여 實際 校正所任을 担當하게 되었으니 이에 印草兩本(印은 庚戌譜 草는 重修할 草本)에 依據하여 자못 增刪과
去取가 있었다. 別譜子孫을 記錄치 못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빠지기 때문이오 四代名諱를 그대로 登載하였음은 마땅히 慎重을
期해야 하기 때문이다. 合譜之說을 排斥함에 있어서 辭意가 明正하고 辨疑之書를 만듬에 있어서 援據가 詳悉하게 하
면서 몇달이 못되어 編纂과 刻板을 마치니 判決君의 힘이 이토록 많았으며 이는 또한 吾宗의 大幸한 일일 것이다. 乎摩(嗚呼
와 같음)라 古語에 이르기를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盛하고 源泉이 멀면 흐름이 길다 하였으니 理致의 넉넉한 바이로다. 우리
李氏는 麗季에 顯達하기 始作하여 本朝에 이르러서는 光廟 成廟代에 極盛하였고 明宗 宣祖때에 이르기까지 名公과 碩輔가 蔚
然輩出하여 文章과 德業이 歷史에 빛나고 子孫은 千億이오 科甲이 連이어오니 이는 祖先의 쌓이고 쌓인 厚蔭의 所致가 아닐수 없
은 즉 이 族譜를 보는 者 祖先의 餘體를 이어서 闡揚하고 家聲을 떨치지 않을 것을 생각치 않을 수 있을까 이는 나와 宗人이
마땅히 함께 힘쓸 일ियो 나로서는 따로 마음에 서글픈바가 있으니 내가 전에 祖父님을 모시고 이 일에 書札을 代筆하여 드
리는 일이 아직 도 어제일 처럼 歷歷하건만 闕缺할 사이에 이미 三紀(一紀는 十二年)가 지났으니 지난일을 생각하고 슬퍼울
덕이지 않을 수 없어 이에 몇마디 아울러 적는 바이다.

崇禎 甲辰(一七二四)年 季夏

後孫 通訓大夫 前行弘文館 校理知製教 兼經筵侍讀官春秋館 記註官 承源 삼가 叩

廣州李氏族譜重修序(丙辰譜)

我李之譜舊有三本始我忠正公先祖撰定世譜印以活字而今不傳繼而寺正先祖重修姓譜以述忠正公舊
書今所謂庚戌譜是也最後甲辰譜則叔祖判書公所校勘農隱公所刊行於是乎去始祖益遠譜吾始祖之宗
規模不得不大體裁不得不備蓋時各有所宜也今又去甲辰七十餘年世代衍長派流浩漫宗人久議改修卒

之委重於尚度辭不獲冒任之六歲工告訖凡爲板者六百八十二爲編者十二爲卷者七而一宗之譜全矣昔蘇明允譜其親止於高祖獨詳所自出而釋之曰譜吾作也今吾承乎甲辰而吾一宗則是譜也非吾作也特吾主管而成之而已其可以詳略間之乎既譜吾一宗又不以詳畧間之則一宗之人其將按是譜而各詳所自出皆可曰是譜吾作也合衆人之所各詳以成一宗之全譜其於廣李收族之道不亦無憾意乎於休我通村先祖以德行志節委祉于後名卿碩儒繼世輩出偉功盛烈炳耀簡策東方氏族之以我爲甲乙信自所由以古觀今何其寥寥而不振也竊念吾譜中諸先獻所需當世光後乘者皆自篤志力學中陶養而就之未有一僥倖崛起而處也今欲振不振之緒而反之乎古不可規規於外至之榮名其必志先祖之所志學先祖之所學勤勤恤恤無忝爾生則皓天不復誠非可虞同我宗者曷不知所勉歟若其事實之取舍惟謹而羽翼乎國史書法之輕重有倫而繩準乎禮憲則蓋亦三致意焉吾豈可以私是書哉至於百代敦睦之誼文翼公癸丑序盡之三譜刪沿之蹟叅判公甲辰叙具焉茲不悖也

上之即阼二十年丙辰仲夏

通政大夫司諫院 大司諫 尚度 謹書

廣州李氏族譜重修序(丙辰譜國譯)

우리 李氏의 族譜가 옛날에 세가지가 있으니 처음에는 우리 忠正公 先祖께서 世譜를 만드셔서 活字로 印刷했는데 지금은傳하지 않고 이어서 寺正先祖께서 姓譜로 重修하셨습니다 忠正公의 舊書를 繼述하셨습니다 지금에 이른바 庚戌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最後로 甲辰譜라 하는 것은 叔祖이신 判書公께서 校勘을 하시고 農隱公께서 刊行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 각 할 것은 族譜를 만드는데 우리 始祖를 위로 모시자면 規模가 크지 않을 수 없고 體裁가 完備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대체로

廣州李氏大同譜卷之一 序

時代的으로 각각 맞아가는 일이다. 지금 甲辰年이 지난지 七十餘年이 되었으니 世代가 뻗어나려오고 派流가 널리 퍼졌다. 宗人들이 오래도록 改修하기를 의론한 끝에 그 重責을 尚度한테 맡기니 사양타 못해서 責任을 무릅쓰고 시작한지 六年만에 工事が 끝나니 무릇 板을 만든 것이 六百八十二요 編을 만든 것이 十二요 卷을 만든 것이 七로서 一宗의 族譜가 完全이 이루어졌다. 옛날 蘇明允이 族譜를 만드는데 그 親族을 高祖에게 그치고 홀로 自己의 생겨난 줄거리만 자세히 밝히고 그 뜻을 밝혀 말하기를 이 族譜는 나를 위해 만든 것이라 하였다. 지금 내가 甲辰譜에 이어서 만든 族譜는 우리 一宗의 것인 즉 이 族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特別히 내가 主管을 해서 만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詳細하거나 또는 簡略하게 하는 것을 可히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한 宗門의 사람이 將次 이 族譜를 가지고 各自가 自己의 所自出을 밝히면 다들이 族譜는 내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사람 各自가 詳細히 記錄한 것을 모아서 한 宗門의 全體의 族譜를 만드는 것은 널리 收族하는 道理에 遺憾이 없다 하겠다.

아! 우리 遁村先生께서 德行과 志節로서 그 복을 後世에 내리시니 이름난 벼슬한 분과 훌륭한 선비가 代를 이어 많이 나오 고 偉大한 功臣과 장한 烈士들이 역사에 빛나니 東方의 氏族中에서 우리를 가르켜 甲이나 乙이나 하는 것은 그럴만한 理由가 있다고 믿는데 그 옛날 생각을 하고 지금을 본다면 어찌하여 이다지도 쓸쓸하고不振할 수가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族譜中에 여러 先祖께서 이룩하신 바 그 當世에 푸짐히 하시고 後世를 빛나게하신 것은 모두 다 뜻을 다 잡고 힘써 배우는 中에서 잘 成功하고 修養해서 이루어진 것이오 하나도 요행이 솟아난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잘되고 못되는 까닭을 옛날로 도리켜 본다면 구구하게 저절로 생기는 榮光과 名譽에 매일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先祖의 뜻한 바를 뜻으로 삼고 先祖의 배우던 바를 배워서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며 걱정하고 걱정해서 잘 못됨이 없이 살아가면 저 하늘이 회복해주지 않을 거정한 바는 아니다. 우리 일가들은 어찌 이같이 힘써야 할 일을 모를 것인가 만약 그 事實을 取하고 버릴 때는 오직 조 심스럽게 國史에 依據하고, 그 輕重은 順序를 두고 禮法에 따라 대체로 세번이상 注意하였다. 어찌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는가 百代까지 敦睦하게 지낼 誼는 文翼公의 癸丑序에 다 말하였고, 세번 族譜에 정리한 자취는 叅判公의 甲辰譜序에 갖추어져 있으니, 이에 거듭하지 않하노라.

正祖 即位 二十年 丙辰(一七九六) 仲夏에

通政大夫司諫院 大司諫 尚度 삼가 씀

廣州李氏族譜重刊序（丙辰譜）

譜所以合族也然合族之法源於祭祭自祭禰祭祖至於祭始祖而繼禰繼祖繼始祖之宗立焉宗立而自祖禰至始祖之族合焉春秋以後祭禮缺而宗法墮懷族不復合矣朱子憂之至以爲大宗法既立不得須立小宗法近世之立主祭四代蓋是也然四代之外猶無統屬及譜法出而始祖以下之族始得以合故曰今之譜法古之祭義也夫祭始祖已至矣而聖人又禘焉禘者祭始祖之所自出也夫禮重始祖然始祖者特謂始基之祖非謂生民之始也如國君始受封卿大夫始受爵或自列國始移居凡有功德於後者及別於他族者皆禰始祖或別子是特別之耳然亦必有所自出既有矣斯祭之既祭矣所祭者以下之族又可得以及合之故周既祖稷殷既祖契而又必禘嚳夏既祖顓頊而又必禘黃帝其義甚精且廣矣我李自萬曆庚戌譜已以 遁村公爲始祖蓋以始顯自 遁村也既又以其考 生員公特書卷首復取 生員公以上四代名諱及 生員公他諸子及四代後裔錄之卷末爲別譜蓋以 遁村公亦有所自出也此正古人禘祫之義而尊祖合族可謂兩得其宜至 景廟甲辰諸議忽岐四代後裔三家者遂分爲乙巳譜是固以別譜爲疏之也然別之者只欲明 遁村之爲別子而已故 遁村之親兄弟猶且別之何有於疏之乎而特未之察寧不惜哉今承旨尚度氏又謀重刊義例之嚴引系之詳參用庚甲間出己意工簡而記備蓋其用心之苦取舍之精要歸於尊祖合族不失前人立譜之義儘可敬也向吾譜凡三成其始也尚度氏先祖東臯公剏之而基讓之先祖漢陰公及見而傳之其次爲庚譜而尚度氏六世祖寺正公修之漢陰公又序之今尚度氏之有是役基讓獨可以己乎遂謹序之

廣州李氏大同譜 卷之一 序

上之二十一年 丁巳夏

通訓大夫 行議政府檢詳文臣 兼宣傳官 基讓 謹撰

廣州李氏族譜重刊序(丙辰譜國譯)

族譜란 氏族을 合하는 것이다. 그러나 合譜하는 法은 祭祀에서 비롯하니나 父에 祭祀내고 祖에 祭祀내며 始祖에 祭를 지냄에 이르러서야 父로 이어지고 祖로 이어져 始祖까지 이은 宗法이 서는 것이오 宗法이 서야 父祖로부터 始祖까지의 族이 합해지는데 것이다. 春秋(中國周末戰國時代直前)以後에 祭禮가 없어지고 宗法이 따라 무너지니 氏族이 다시는 合치지 못하였다. 朱子께서 訂正하시니 大宗法이라고 세워야 한다고 하였으니 近世의 四代를 祭祀지내는 法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四代以上은 오히려 統屬이 없다고 譜法이 나옴으로 해서 始祖以下의 宗族이 비로소 合치게 되었는故로 오늘날의 譜法은 옛날의 祭義라 말할 수 있다. 무릇 始祖에 祭祀낸도 이미 至極한 精誠이건만 聖人이 또 禘란 것은 始祖의 所自出(즉 아버지)을 祭祀지내는 것이다. 대체로 禮에는 始祖를 重히 여기나 始祖란 것은 基礎를 세운 祖上을 指稱함이오 生民의 始祖를 말함이 아니니 國君으로 처음 封함을 받는 것이나 卿大夫로서 처음 爵을 받는 것이나 或列國에서 移居하여 後世에까지 功德이 있는 자 및 他族과 有別한 者를 다 始祖라 하고 或은 別子는 이를 따로이 分別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의 아버지는 있을 것이니 있는 즉 祭祀지낼 것이고 祭祀를 지낸다면 祭祀받는 者 以下의 氏族은 合치지게 되는故로 周나라는 이미 稷으로 始祖를 삼았고 殷나라는 契로 始祖를 삼았으니 또 반드시 嚳(고)에 禘지냈으며 夏나라는 이미 顓頊(전욱)으로 始祖를 삼았으니 반드시 黃帝에 禘를 지냈으니 그 뜻이 甚히 精하고 넓다. 우리 李氏는 萬曆庚戌譜에서 이미 遁村公으로 始祖를 삼았으나 遁村으로부터 처음으로 顯達하였기 때문이며 또 그 아버지 生員公을 卷首에 特書하고 生員公以上 四代名諱와 生員公의 여러 他子들과 四代後裔들을 卷末에 記錄하여 別譜로 하였으니 遁村公 또한 所自出이 있으므로 서이요 있는 바로 古人之 禘祫(체합)하는 뜻이며 尊祖와 合族에 可謂 多 得宜하였다 할 것이다. 景廟甲辰에 이르러 여러 議論이 分裂되어 四代後裔세집이 드디어 따로 乙巳譜를 한것은 곧 別譜로 된 것을 疎忽하다고 여긴 까닭이다. 그러나 分別한 것은 다만 遁村이 別子임을 밝히고저 하였을 따름인故로 遁村의 親兄弟들 까지도 오히려 分別한 것이니 어찌 疎忽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 點을 特히 살피지 못함인 즉 어찌 哀惜하지 않으리오 이제 承旨 尚度氏가 다시 重刊을 圖謀할제 義例의 嚴함이나 引系의 仔詳함을

參用하고 間或 自己意見을 넣어 일은 簡便하면서도 記錄은 周備하였으니 그 用心의 괴로움이나 取捨의 精함이 오직 尊祖合族에 歸結됨에 前人들의 譜規세운 本義를 잃지 않았음이니 참으로 可敬할 일이며 지난날 우리 族譜는 모두 세번 이루어졌으니 그 처음은 尚度氏 先祖 東臯公께서 草創한 것을 基讓先祖 漢陰公이 보고 傳하였고 그 다음은 庚戌譜로서 尚度氏六世祖 寺正公께서 修譜함에 漢陰公이 또 序하였으니 이제 尚度氏의 이번 일에 基讓(즉 本人)만이 可히 만들 수 있었을가 이에 삼가 序하노라.

上之二十一(一七九七)年丁巳夏

通訓大夫 行議政府檢詳文臣 兼宣傳官 基讓 삼가 告

廣州李氏族譜重刊序(癸酉譜)

族之有譜古也 吾宗舊有世譜 壬辰兵燹灰而不傳 粵昔庚戌文景公五代孫寺正公重纂姓譜我先祖 文翼公序之嗣其後甲丙兩譜出焉 歲久代曠親者漸疎疎者益遠無以修敦睦之誼乃吾 遁村後裔者常庸慨然 往在己酉冬諸宗屬余以重刊之役未幾余以萊州命周歲滯南未克親自校讎族中數人不有譜規潛刊偽譜 惟吾派暨漆寶二派推單不入噫偽譜既出即修正譜以其辦偽直戾契致耳因循而莫之遂者今過數十載矣 迺於庚午春京鄉諸族齊會以譜事諄于余余曰不譜則己爲譜宜清僉曰諒矣遂定節目一依前譜規例翌年 以活字印之工既訖余不揆僭越仍書顛末以諗于後裔惟我李得姓於東方在勝國時已有聞人入我 朝以來名碩輩出德業炳耀需當世光後乘者實由我祖先之積德累仁委祉于後昆也凡我同譜之人克體先志無 忝其生則李氏業其將復昌與天壤同敞諸宗其念之哉

上之即昨十年 癸酉秋

輔國崇祿大夫 判中樞府事 兼吏曹判書 宜翼 謹書

廣州李氏族譜重刊序(癸酉譜國譯)

譜法이 생긴지는 오래되었다. 우리 宗中에도 예전에 世譜가 있었으나 壬辰兵火에 燒失되어 傳하지 못하였고 庚戌(一六一〇)

廣州李氏大同譜卷之一 序

年에 文景公의 五代孫이신 寺正公께서 姓譜를 編纂하시니 우리 先祖 文翼公께서 序文을 지으셨다. 그後 甲丙兩譜가 出刊되었으나 歲月이 오래되고 代數가 멀어져서 敦睦의 誼가 漸漸疎遠하게 되니 恒常念慮되던 바이다. 지나간 己酉年에 諸宗들이 譜牒을 重刊하라는 要請이 있었으나 當時 내가 東萊府使에 任命되어 一年이 지나도록 編纂을 못하고 있던 中에 一部宗員의 譜規에 違背되는 僞譜(不正한 族譜)를 發刊함에 우리 派와 漆谷 寶城兩派의 收單이 들지 않았으니 슬픈일이 많을 수 없다. 僞譜가 이미 나왔음에 곧 正譜를 修纂하여야 할 것이나 此日彼日數十年이 지났다. 庚午年 봄에 京鄉諸族이 모여서 譜事에 對하여 나에게 물으니 내가 말하기를 族譜를 하기로 하면 마땅히 재-cut이 하여야 된다고 하니 諸宗이 贊同함으로 드디어 節目을 前譜規例에 依하여 定하고 다음해에 이르러 發刊하게 되었다. 내가 외람됨을 不顧하고 顛末을 記錄하여 後裔에게 告하노니 우리 廣李는 東邦勝國時부터 名聲이 높았고 我朝에 와서 文武兼全한 분이 많아서서 德業이 빛나니 當世에 需要가 되고 後裔에 榮光이 있는데 實은 先祖께서 仁과 德을 쌓으셔서 後孫에게 복이 되게 한 것이다. 族譜를 같이 하는 우리들은 先祖의 뜻을 본받어 살아감에 욕됨이 없으면 李氏의 業이 다시 昌盛하야 天地로 더불어 無窮하리라 諸宗은 생각할 진저.

高宗十年 癸酉(一八七三)年秋

輔國崇祿大夫 判中樞府事 兼吏曹判書 宜翼 삼가 씀

廣州李氏族譜重刊序(癸酉譜)

惟我李氏始顯於麗季逮及 本朝名公碩輔蔚然輩出文章勲業炳耀簡策子孫蕃茂科甲連綿莫非 祖先積累之厚也以朝宗視之則本是同根然服盡於總小功則漸至於疎遠而親愛之情自不能厚矣是以分一人之身而終至於塗人非其情薄於親以其代遠而有所降殺而然也欲親其親者必本其親之所自出而追慕之心於是乎切焉欲睦其族者必推其族之所自分而親愛之道於是乎篤焉古之人多譜其族以叙其厚者此也我李之譜舊有四本始我忠正公先祖撰定世譜印以活字而寺正公先祖重修姓譜以述忠正公遺蹟而文翼公序之庚戌譜是也逮至甲辰貞拙齋公承其先考之遺旨校其舊收單草送之于其叔父農隱公北伯莅所劄劄既訖三棄齋公序之丙辰譜則叅判公尚度氏與槐菴公東贊氏主管校刊而詳略甚備取舍分明爲諸族之

迄今稱頌矣及至己酉私爲派譜間多差誤是豈繼先收族之誼也哉合譜釐正議則久矣而以其財艱而事鉅未易倉卒尚若隱恫于中矣宗丈判府事宜翼氏因諸宗之推委謀功辦財刪去己酉之不當入者一依丙辰譜之清規初始二載工乃告訖敦睦之誼因此油然而足知 祖宗積累慶隲之所自也凡爲後者家傳世守而勿替之又能踵是而增修之則是譜也庶將傳之于無窮矣勉旃夫

上之即昨十年 癸酉秋

嘉善大夫行 吏曹叅判 容學 謹序

廣州李氏族譜重刊序(癸酉譜國譯)

우리 李氏는 처음으로 高麗末에 나타나서 朝鮮朝에 이르기까지 이름난 公卿과 훌륭한 보필이 많이 나왔고 文章과 功蹟들이 文獻에 빛나게 되었으며 子孫들이 번성하여 科擧에 及第한 분이 연달아 나게 되니 이것은 祖上님의 쌓은 德이 두터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始祖로부터 본다면 본시 한 뿌리나 服이 總麻 小功을 다한즉 점점 疎遠해지게 됨에 따라 親愛하는 情이 漸漸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몸에서 나누어져서 마침내 딴 사람같이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일가간의 親分이 엇다기 보다는 그 사이에 代數가 멀어져 내려온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일가간에 親分을 두텁게 하자면 그 일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나오게 된 것인가를 알아야 追慕하는 마음이 간절하여지는 것이며 일가간에 화목코자하면 반드시 어디서부터 갈려졌나를 알아야 親愛하는 情이 두터워질 것이다.

옛날부터 모든 사람이 많은 일가를 족보에 묶고 서로 의리를 두텁게 한 것이 이때문이다. 우리 李氏의 族譜가 있었으니 처음에 우리 忠正公先祖께서 世譜를 꾸며내어 活字로 찍어서 내셨고, 寺正公先祖께서 姓譜를重修하여 忠正公의 遺蹟을 繼述하셨을 때 文翼公께서 序文을 쓰시니 庚戌譜가 이것이다. 그리고 甲辰年에 이르러 貞拙齊公께서 그 先考의 遺旨를 받들어 그전 收單된 草稿를 校正하여 그의 叔父이신 農隱公 北伯莅所에서 印刷가 끝나니 三棄齋公께서 序文을 쓰셨다. 丙辰譜는 叅判公 尚度氏가 槐菴公 東贊氏와 같이 校正과 刊行을 주관한 바 자세히 잘 되었고 넣고 빼는 것을 分明히하여 諸族들에게

廣州李氏大同譜 卷之一 序

지금까지稱頌을 받는다. 己酉年에 이르러서 私的으로 派譜를 만드는데가 있는데 그 間에 差誤된 것이 많으니 이 어찌 先代를 이어 收族 할 수가 있겠는가, 合譜를 해서 바로잡자는 議論이 난지는 오래지만 財政이 어렵고 일도 커서 열은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걱정만 하고 있는 中이였는데 宗丈 判府事宜翼氏가 여러 宗人들의 부탁으로 일을 꾸미고 財政을 마련하여 己酉年에 不當하게 들어온 者들을 다 빼어버리고 한결같이 丙辰譜의 깨끗한 規程대로 시작하여 二年만에 일이 끝나니 敦睦하는 誼가 이때부터 흐름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또한 足히 先祖님들의 많이 쌓으신 德으로 이루어진 경사라 할 것이다. 무릇 後孫들은 집집마다 傳하고代代로 지켜서 틀림없이 할 것이며 또한 이 뒤를 따라서 더욱더 잘 꾸며나가면 이 族譜가 거의 無窮하게 傳할 것이니 힘쓸 일이다.

今上即位十年 癸酉(一八七三)年 秋

嘉善大夫 行史曹叅判 容學 삼가 씀

廣州李氏族譜重刊序(己未譜)

昔予弱冠先考序癸酉譜手執使役於筆硯之間了了如昨而不肖無狀又當是役撫古之私不覺嗚悵而轉眄之頃已逾四十餘星霜矣世代變遷子孫繁衍改修前譜固其時也門內叅判容觀氏經營屢載積費心力事將就緒以病昏託于不佞兩易星霜庚申丙癸之業復新甚大幸然此豈徒然觀察秉承氏以淹博之學加精詳之校竭殫心思且其冷手殘枰主財主務能舉其職如起空樓秘書丞鼎來氏之力爲尤多皆可書也已嗚呼是譜也與疎宗合同者親也與古規不同者時也凡爲我 生員公暨 遁村先生之所自出者勉思所以尊祖保宗之義隨其時親親不在譜而在乎人焉此又不可不知也於是乎書

癸酉修譜後四十七年己未秋七月

嘉義大夫 宮內府特進官 承載 謹序

廣州李氏族譜重刊序(己未譜)

옛날 내가 젊었을 때 先考께서 癸酉譜에 序하실제 내 손수 筆硯間에서 助役하던 일이 또렷 또렷어 제일 같건만 不肖가 無狀으로 또 이 일을 當하게 되니 옛날을 더듬는 私情에서 울먹임을 깨닫지 못하겠으니 눈 감박 할 사이에 이미 四十餘年이 지난 것이다. 世代는 變遷하고 子孫은 繁昌하니 前譜를 改修함에 꼭 알맞는 時期이다. 門內 叅判容觀氏가 여러 해를 經營하면서 心力을 다하여 일이 맺어지려 할제 病昏으로서 不佞(영리하지 못함)에게 맡기니 두번 星霜이 바뀌어(二年이 지난) 庚戌 甲辰 丙辰 癸酉의 事業이 다시 이루어지니 甚히 大幸함이다. 그러나 이어져 저절로 되는 일이지오 觀察兼承氏가 淹博한 學識으로 精詳한 校正을 加하기에 心力을 다 하였으며 또 아끼고 節約하는 솜씨로 財務를 보기도 하고 總務도 맡아 하면서 能히 所任을 다하여 空中樓閣을 이르기듯한 것은 秘書丞鼎來氏의 힘이 더욱 많았으니 다 記錄해 둘만하다. 嗚呼라 이번 族譜는 疏遠한 宗族과도 合同한 것은 親을 주로 함이오 古規와 같지 않음은 時宜에 따르기 때문이었다. 무릇 우리 生員公 및 遁村先生으로부터 나온 者(子孫된 者) 힘써 尊祖保宗의 意義를 생각할 일이오 그때 그때 親親함이 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즉 이것 또한 알지 못하면 아니 될 것이다. 이에 序하노라.

癸酉年에 族譜한 後 四十七年만인 己未(一九一九)年秋 七月

嘉義大夫 宮內府特進官 承載 삼가 씀

[illegible]

之直 지 직

川名途字伯平號炭
 學問高師事周平
 高麗王六年庚申
 署承登文科以司馬
 一三〇年
 湖西入爲刑曹右叅
 議實文閣直提學庚
 辰昭悼之變叩馬極
 諫左右欲兵之太
 宗急顧附托而然哉
 故入豈獨對曰某之
 卞春亭與日月爭光
 忠義上齊比操三代
 下與夷齊比操三代
 後遭直退居廣州人
 遂邊鋤退居廣州人
 川邊鋤退居廣州人
 生太宗晚年屬東宮
 收用曹世宗嗣位徵
 以刑曹右叅議未赴
 而卒議追被清白選
 贈廷議政被清白選
 村基西別岡葵坐遁
 孝宗癸巳立表石九
 代孫休徵撰陰記九
 代孫厚徵書陰記九
 英祖癸巳一七七三
 年昌寧儒林建雲谷
 書院奉享
 甲子一九八四年三
 月大宗會以癸巳碣
 石歲久殘缺改堅新
 石後孫琛鎮書
 贈父敬知事人慶州李
 氏父周知事人慶州李
 在府君墓上癸坐
 謹按漆谷南原後孫
 家全書公生于甲午

長孫 張 孫

字孟胤	通政大夫議政府左宗科	人知製教兼春秋館	編修官享年三十一	郡雲谷書院在昌寧	那城山面雲峰上	在大院里乾坐	庚戌一九七〇年	城五都計劃不幸	移葬于城餘市下	院洞遁村先祖墓	下卯坐原短碣及石	物移堅戊辰一八九	雞林后六月改堅墓	銘淑夫人安東金氏	附有碣舊譜云無配	位貫鄉官中書舍人	君今從短碣文墓府	謹按乙卯一九七五	年刊舍人公派譜公	太祖丙寅生十一月	太祖丙寅生十一月	十七日卒夫人四月	舍人公卒中提出譜	稿公派譜上太祖丙	寅生云年代錯誤而	洪武庚午一三九〇	二年生宗庚子一四	辛釐正云故玆以附	于注未以備知焉	子克圭	女李益智	鄭之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克主 子子

字公瑞 咸宗十辰
 官通政大夫兵曹叅議 燕山朝遷居海州首陽山下不仕十餘年卒清白志節鳴于世享雲谷書院戊戌先考墓右別岡戊戌坐而因同上庚戌移葬于下大院洞先考墓下卯坐短碣及石物移堅戊辰一九八十六代孫秉鶴撰銘謹按舊譜上公皆兵曹叅議而今次墓碑改暨時舊墓表刻錄戶部正戶曹然議故今譜釐正戶曹然議茲附注末以備知焉
 淑夫人海州吳氏父孝敏墓雙墳有短碣舊譜云淑夫人金氏而今從表石文釐正墓府君墓移葬時附
 子益壽
 子希壽
 子成壽

益壽 익수

緝川李氏父正言元	子鵬	子鸞	女李槌	女李晟
希壽	司午	墓在先考墓下而移葬于下大院里遁村公墓右階下甲坐	成壽	廿午
筮仕振威縣令七月二十四日卒墓在忠北木川蘆洞	淑夫人金堤趙氏五	月七日卒墓祔	子姬奭	女李璉
女邊擢				

鵬
조

[illegible]